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

-북미연구회-

작성부서 :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
작 성 일 : 2016. 5. 23
작 성 자 : 권혁주 연구원
전 화 : 044-414-1086
연 락 처 : hjkwon@kiep.go.kr

I. 개 요

1. **일시** : 2016. 5. 18(수) 16:00~18:00

2. **장소** :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 19층 PDR Meeting Room

3. **발표자** : 김지윤 연구위원(아산정책연구원)

4. **제 목**

- 미국 대선 체계와 주용 후보들의 정책 방향

5. **참석자(총 8명)**

- 내부참석자(5명): 권기수(미주팀, 연구위원)
  윤여준(미주팀, 부연구위원)
  김원기(미주팀, 부연구위원)
  김종혁(미주팀, 전문연구원)
  권혁주(미주팀, 연구원)

- 외부참석자(5명): 고희채 연구위원(KOTRA)
  김형주 연구위원(LG경제연구원)
  윤주석 과장(외교부)
  최윤식 연구위원(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)
  김지윤 연구위원(아산정책연구원)

II. 주요 발표 내용

□ **(주요 미국 대선 후보)** 현재 확보 대의원 수를 기준으로 대선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(민주당)과 도날드 트럼프(공화당)가 매우 유력

– 확보 대의원 수(추정치)는 클린턴이 2,240와 트럼프가 1,135임.

□ **(미국 대선 일정)**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으로 전국 전당대회, 직접선거 및 간접선거 등으로 연결

– 미국 양당 경선은 주별로 진행이 되며 주별로 코커스(Caucus) 또는 프라이머리(Primary) 체제 중 택일하여 진행함.

o 코커스는 주(州) 당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당원대회로 미국 전체 주의 25%가 코커스를 통해 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규모가 작은 주들임.

o 프라이머리는 주정부/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예비선거로 비밀선거를 통해 진행되며 규모가 큰 주들이 프라이머리 체제를 선택하고 있음.

o 이는 프라이머리 체제가 코커스 체제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 당위원회에서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– 공화당의 대의원 수는 총 2,472명으로 과반 1,237명의 확보가 필요하며 승자독식, 승자다식, 비례배분 방식 중 주별로 채택함.

– 민주당의 대의원 수는 총 4,765명이며 2,383명의 과반 확보가 필요함.

o 지역구별로 15% 미만의 득표율 기록자는 대의원 배분에서 제외됨.

o 슈퍼대의원(Super Delegate):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슈퍼대의원 제

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화당 슈퍼대의원은 당의 방침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는 반면, 민주당 슈퍼대의원은 자율적인 후보 선택이 가능하여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.

– 주별 경선이 완료된 이후 전당대회(National Convention)를 통해 대의원의 투표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해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함.

– 이후 직접선거를 통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는 선거 당해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이루어짐.

o 이를 통해 선출된 선거인단은 12월 13~19일 중 월요일에 선거를 진행하며 해당 결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선출됨.

o 하지만 선거인단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결과를 통해 이미 대통령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함.

□ **(트럼프 후보의 열풍)** 트럼프 후보의 열풍은 미국의 구조적/사회적 변화를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음

– 이는 백인 남성이라는 자체에 대해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던 미국 사회가 이민자/유색인종 등의 과거 비주류 층에 의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진 백인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o 상기 언급된 사회적/구조적 변화는 미국 정치인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음.

o 반면, 트럼프 후보는 이를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지지를 얻어내고 있음.

– 또한, 현재까지 트럼프 후보는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단어들을 위주로 사용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신의 공약과 의지

를 전달하고 있음.

□ **(양당 후보의 주요 정책)** 현재까지의 미국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은 다음과 같음

– 외교안보정책(클린턴):

o 1) 동맹국과의 파트너십 유지 2) 전통적인 한미동맹 유지 3) 핵비확산 체제 유지 4) 對북한 협상 추진

– 외교안보정책(트럼프):

o 1) 동맹국 고통 분담 요구 2) 미국 우선주의 3) 핵무장을 포함한 동맹국 자립적 무장 요구 4) 중국의 대북봉쇄 정책 요구

– 경제정책(클린턴):

o 1) 균형있는 성장 2) 부자증세 추진 3)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4) 한미FTA지지 5) TPP 반대 혹은 유보

– 경제정책(트럼프):

o 1) 저소득층 면세 추진 2) 소득 최상위 계층 세율 인하(39.6%→25%) 3) 상속세 및 법인세 폐지 또는 감축 4) 한미FTA 재협상 추진 5) TPP 반대

– 사회정책(클린턴):

o 1) 이민자 포용(이민개혁법안 추진) 2) 오바마케어 유지 3) 환경/기후변화 적극대응

– 사회정책(트럼프):

o 1) 불법이민자 추방 2) 멕시코 장벽 설치 3) 오바마케어 철폐 4) 낙태 반대 5) 환경/기후변화 미온적 대응

– 클린턴 후보는 현재까지 밝힌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, 트럼프 후보는 공약 및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.

o 일례로 최근 상기 언급된 '중국의 대북봉쇄정책'에 대한 입장에 대해 중국을 통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꿈.

III. 주요 토론 내용

□ **(미국 경제성장과 대선 결과)** 미국 시민의 체감경기가 차기 대통령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

– 과거 LG경제연구원에서의 자료 비교 결과 대통령 집권 1년차 미국 경제성장률에 비해 4년차 경제성장률이 낮을 경우 집권당이 대선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남.

o 직접적인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는 미국 국민들이 전문적으로 경제 수치를 보면서 판단한다기보다는 집권 마지막 해의 체감경기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음.

o 미국의 민간소비 부문이 전체 GDP의 2/3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인들의 체감경기와 경제성장의 상관성이 높을 수 있음.

□ **(상원의원 선거)** 미국 대선과 함께 상원의원 선거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에 대한 움직임도 함께 주시해야 할 필요

– 미 상원의원 100명은 현재 공화당이 54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, 민주당 45명,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있음.

– 상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법관 인준으로 지난 2월 사망한 Scalia 법관의 후임자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.

o 오바마 대통령은 3월 중도 좌파 성향의 Merrick Garland를 후보자로 지명했음에도 불구, 상원 측은 해당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있음.

o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여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□ **(미국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)**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들을

공약으로 추진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정책 관련 공약이 대선 당락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

-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/안보 정책에 보다 집중하고 분석하게 되는 입장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관련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-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한국은 미 대선 후보들의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해당 후보들의 외교 정책들에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□ **(히스패닉의 대선 영향)** 현재로서는 미국 내 히스패닉 계의 대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

-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최근 미국 내 히스패닉 계열 비중이 높아져 이민 정책 등의 여부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.

- 하지만 미국 대선 시스템이 한국과는 다른 체계를 지니고 있고 주별 히스패닉 비중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의 국한된 주제이며 해당 주에서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.

o 이는 첫째로 미국의 다수 주(州)들의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미국 대선 체계가 승리자 독식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임.

o 예를 들어 텍사스의 경우 보수적 성향이 강해 히스패닉 비중이 높은 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민 정책의 여부가 공화당 지지 입장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o 쿠바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테드 크루즈, 마르코 루비오 후보도 조명된 바 있지만 미국 내 히스패닉 계열 중 쿠바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으며 주 역시 플로리다 주에 집중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.

– 다만, 장기적으로는 히스패닉 비중이 현재보다도 높아질 것이며 이들이 청년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양당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에 맞춰 당의 전략을 맞춰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음.

□ **(트럼프 후보의 향후 움직임)** 트럼프 후보의 대선 관련 행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

– 경선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트럼프 후보가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.

– 이에 트럼프 후보가 경선 때와 같은 전략으로 대선을 치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
– 하지만 막말 및 자극적인 공약 등을 통한 전략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일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.

o 이는 경선 절차까지는 어느 정도 트럼프 후보의 독자적인 전략이 가능했지만 대선 절차에 돌입할 시 공화당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트럼프 후보도 공화당 입장에 상당 부분 맞춰가야 할 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.